

지역 대학과 연계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상생 가치 실현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빛가람혁신도시 최대 입주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대한민국 전력산업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993년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조직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여기에 2004년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결성한 뒤 현재까지 체계적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는 등 '상생'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면서 한전과 협력기업 전체가 발전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 사옥 전경.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 한전은 제품 개발에서 해외수출까지 중소기업이 필요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시행으로 한전과 협력기업 전체가 발전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중소벤처지원차'로 조직을 개편했다.

히든 챔피언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R&D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이 해외 전력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시범사업도 대폭 개편했다.

한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지원 전담조직인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기업 최초로 발족했고 광주 에너지신산업 창업센터도 문을 열었다.

오는 2020년까지 KEPCO 스타트업 300개사를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100개사를 선정해 2년 동안 2억원 한도의 자금과 분야별 기술 멘토링, 액셀레이터 컨설팅 등 토탈패키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한전 인재개발원과 연계해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실질적 지원책 마련 나서 = 협력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협력R&D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에서

15억으로 50% 상향, 연구용 설비 구입비 및 시작품용 금형 제작비까지 지원범위를 넓혀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송배전 기자재의 연구에서 에너지 신사업 기자재 및 신소재, Big data, AI, IoT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로 과제범위를 확대, 중소기업 과제 제안 신청 시 제조 실적 제한 폐지 등 지원대상 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또 한전은 R&D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전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R&D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가 직접 아이디어 단계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개발방향과 시행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 관리'로 R&D제안 채택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연구개발제품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유망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해 수출형 연구개발 신규 추진하고 수출 시범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형 연구개발은 해외 전력회사가 필요한 전력기자재로 수출유망 송배전 및 에너지신산업 기자재에 대해 기술 컨설팅·연구개발비를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 판매중인 전력기자재 중 해외

전력시장과 규격이 상이해 수출이 곤란한 기자재에 대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다.

수출 시범사업은 협력R&D 개발품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원실적이 낮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출유망 기자재로 품목을 확대해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전력에너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자금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술보증 대출시 기술보증료 지원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도 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 =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을 물론,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우선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실명예방 사업인 '아이러브 천사 프로젝트'(Eye Love 천사 Project)를 펼치며 '세상의 빛'을 선물하고 있다.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실명 위기 환자들이 안과 수술을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1533명의 환자에게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한전은 2010년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KEPCO 119 재난구조단'을 조직, 인명구조와 의료지원, 현장지원 등 총 177명의 단원들이 각종 재해·재난 때 힘을 보태고 있다.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 신속한 현장복구 지원과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순시선 2척 투입 및 전기설비 긴급 가설과 휴대폰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04년 창단된 사회봉사단은 공기업 가운데 최대규모로, 전국 309개 사업소, 2만 1500여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단이다. 방과후 학습과 사랑의 에너지 나눔을 비롯, 국내 최초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가 돋보인다. 다문화가정 100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시작한 이 사업으로 이주여성과 자녀 총 347명에게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고려인 청소년들을 초청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한민족 역사 찾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브랜드 파워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형식적이거나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 KEPCO 대학생 해외봉사단 30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에서 한전은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 행사를 통해 125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전력분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cdu.ac.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하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항공분야 특성화대학-초당대학교

-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원 운영 및 영광항공캠퍼스 추진 중
-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Rotax엔진교육센터 운영
-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과 산학협력 체결

초당대학교
CHODANG UNIVERSITY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1577-2859